수행의 향기 세간을 청정하게 하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不在詩書三萬軸(부재시서삼만축)하고
非關經論五千函(비관경론오천함)이로다.
言前已泄靈潛意(언전이설영잠의)어늘
文字何勞更指南(문자하로갱지남)하리오.

시서 삼만 축에도 있지 않고
오천 함의 경론도 관계없도다.
말 앞서 이미 신령스러운 뜻 드러났거늘
문자로서 어찌 수고로이 지남을 삼으리.

삼동결제를 하는 안거 대중이여!

전국의 선원에 많은 수선납자가 모여 생사대사를 끊고자 하는 意氣(의기)가 충만하도다.

結界(결계)가 원만하고, 대중이 六和(육화)로 화합하며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모여 정진하니 최상의 수행 대중이 이루어졌도다. 여기에 수행을 돕는 단월의 정성이 더해지니 삼동결제를 장애 없이 성만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도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산문 출입은 저절로 끊어지고 세간의 증애와 시비도 저절로 사라졌도다.

수행 대중의 정진 향기는 무풍한송로의 청량한 솔바람처럼 세간의 모든 폭력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일승교를 흐르는 맑은 물처럼 지구촌의 모든 오염을 청정하게 하리라.

이것이 수행 공덕을 널리 법계에 회향하는 일이니 수행 대중은 모두 안거를 성만하여 법계를 청정하게 해야 하리라.

金色秋天月(금색추천월)이
光明照十方(광명조시방)이로다.
衆生心水淨(중생심수정)하니
處處落淸光(처처락청광)이로다.

황금빛 가을 하늘의 달이
광명을 시방에 비추네.
중생의 마음 맑은 물 같으니
곳곳에 청정한 빛 내려앉네.

"결제 기간 동안 화두를 투관하라"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



옛날 어느 노보살이 정진을 열심히 해 장래가 촉망되는 스님에게 초암(草庵)을 지어주고 20년 간 시봉을 잘 했습니다. 어느 날 노보살은 스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예쁘게 단장한 딸을 초암에 들도록 했습니다. 딸은 스님에게 상(床)을 잘 차려 공양하게 하면서 무릎 위에 올라앉아 "지금 어떠합니까?"고 물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고목한암(枯木寒岩) 냉난부지(冷煖不知)라. 너는 마른나무 가지이요 난 찬 바위라 찬지 더운지를 모르겠다"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노보살은 "내가 사기꾼 도둑인 줄 모르고 20년이나 시봉하다니 잘못됐다"며 스님을 쫓아내고 암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파소암(婆燒庵)'이라는 공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스님은 무엇이라 대꾸하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노보살은 암자를 불태우지 않았을까 일러주는 화두입니다. 〈중략〉

한국불교는 예로부터 삼동결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역대 선조사들은 모두 이러한 결제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후학들에게도 그 지남(指南)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우기(雨期)가 계속되는 인도와 달리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상 한국불교는 동안거가 만들어졌고 이 기간에 산내암자 스님들도 본사에 함께 모여 참선, 염불, 간경 등 소향대로 정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종단은 사설암자에서 혼자 수행하는 종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경계마저 무너뜨리고 올바른 심지(心地)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본분사라 하겠습니다.

참선에 주력하는 일뿐 아니라 염불, 간경, 기도하시는 분들도 결제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용맹정진한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파소암'의 공안처럼 화두를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방법입니다. 결제 기간 동안 화두(공안)를 투관(透關)하겠다는 확실한 신념과 깨달을 수 있다는 원력을 세운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종양은 도려내도 惡言 씻기 어렵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陞座 拄杖三下云 會麽?
卽下契合頓悟出 億劫胸滯物消却
石人海底柴運搬 木女十字街賣餠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시고 아시겠습니까?
즉하에 마주보는 여기서 바로 계합되어
크게 깨달아 뛰어나면
억겁동안 가슴에 쌓이고 막힌 흉체물이
흔적 없이 씻어 없어지리라
돌사람은 바다 밑에서 땔나무를 운반하고
나무 여자는 십자 거리에서 떡을 파는도다

금일 결제대중은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을진댄 또 이르리라.

금일 대중이 갑진년 동안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해인사 비구 학산 대원은 이 몸뚱이 위에 항상 무위(無位) 진인(眞人)이 앞에 나타나고, 청정한 대중은 법계로서 가람을 삼고, 한가지로 모든 대중은 九十日內 안거정진 하는데, 그 가운데는 금강과 같은 우리를 밟아 부수고, 또 거칠은 쇠밤송이를 씹어 삼키며, 꿈가운데 佛事를 지어서 거울속에 마구니를 항복받으니, 身口意 삼업이 깨끗하고 六根이 밝고 깨끗해져서,

행주좌와(行住座臥) 일체처에 모든 허물이 없으며, 여래의 일백사십대원에 계합하여서 마침내 삼보의 종자가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니, 진실로 능히 이와 같이 닦아 증득해야만 이와 같은 안거가 참대장부요, 이것이 참으로 뛰어난 출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 한방울도 녹일 수 없습니다. 출가문중에서 이럭저럭 시비(是非) 다툼만 하고 적당히 안거만 채운다면 어느 시절에 화두를 타파하여 요사인(了事人)이 되겠습니까?

이륙시중(二六時中)에 화두가 끊어지면,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집행하는 날을 받아 놓았다면 편안한 잠이 오겠습니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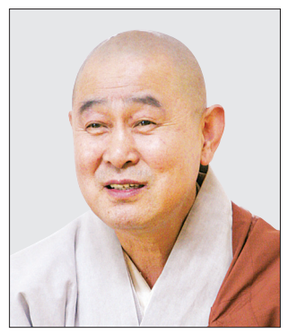
금일 산승은 不然이라.
著言컨대 頌曰
師三問侍 未會
我當時奪取拄杖
一點掃却棄拄杖
拍掌喝大笑出去하리라
師가 세 번 물어도 侍僧은 알지 못한다 하니
내가 당시에 있었다면 주장자를 빼앗아
한 점을 쓸어버리고 주장자도 던져 버린 뒤에
박장 할하고 크게 웃고 떠나가리라

爲甚麼如此
腫瘍刀盡 惡言難消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고?
종양은 칼로 도려내면 다하지만
악한 말은 씻기 어렵다

11월 15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종단 종정예하를 비롯한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집착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日落西山天地暗(일락서산천지암)
月出天地上下明(월출천지상하명)
石佛說法金魚聽(석불설법금어청)
靑山淸曲流水舞(청산청곡유수무)

해가 지니 서쪽 하늘이 어두워진다.
달이 뜨니 하늘과 땅 상하가 밝아진다.
돌부처가 설법을 하고 금샘 금어가 듣는다.
청산에 맑은 곡조요 흐르는 물이 춤을 춘다.

해가 지니 자연히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달이 뜨니 하늘과 땅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다. 금정산 계곡 곳곳에 돌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시고 금정산 금샘에 금빛 물고기가 법문을 듣는다. 푸른 청산 그대로가 맑은 곡조요 계곡을 흘러 내려가는 물소리가 춤을 추고 있다.

산천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요 흘러가는 물소리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다. 말없이 서 있는 나무들 천년만년 오랜 세월을 온갖 풍상 속에서 자태를 이어온 바위들이 그대로 설법하고 설법을 듣는다.

부처님의 설법을 자연에서 들을 줄 안다면 머물고 행하는 그대로가 극락정토이다.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맑게 깨어서 자연을 바라보면 모두가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의 설법 아닌 것이 없다.

마음을 깨달은 성인의 마음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다만 가고 올뿐, 마음은 늘 그대로 여여합니다.

감에 감이 없고, 옴에 옴이 없다. 몸이 가고 몸이 올뿐 마음은 한 발짝도 옮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하늘에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지만 하늘은 늘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 바탕은 텅 비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고요한 것입니다. 한적한 산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시끄러운 시장통을 거닐어도 마음은 늘 여여해서 조금도 움직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라보이는 밖의 경계는 순간순간 바뀌고 달라져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도 근본 마음 바탕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無心(무심)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이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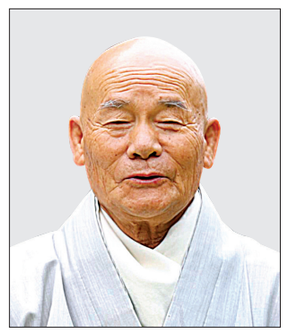
過去如空(과거여공)이요
知處迷宗(지처미종)이네.
과거는 마치 허공과 같고
알았다고 하면 근본을 잃어버리네.

깨달음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나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 망상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붙들려고 하는 한 집착에 떨어지지만 나라고 하는 眞我(진아) 마저도 놓아 버리면 곧 解脫(해탈)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뇌도 없고 깨달음이 와 있습니다. 執着(집착)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응관! 부처님의 화두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시원하게 터진 하늘 끝 모를 깊이 둥실 달이 밝았습니다.
아, 웅장하다. 이 생명덩어리!
이 새벽, 대종소리, 온통 한 덩어리 이 물건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
웅장하다, 과연 쉬어지네.

눈 뜨면 시방세계, 눈 감으면 이~뭘까!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 前, 이 구슬, 만고의 휴식처
저절로 굴려지고 있나?
머리, 머리, 원동력, 찬란한 생기
아~ 벗어났네! 만고의 이 자유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대자대비 사랑의 한 덩어리 일색 에너지
대중시봉, 주고 베푸는 열린 마음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이놈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는 복력이더라.
이 공부의 첫 단계가 이 至心이요, 이 보시입니다.
육도문중에 행단이 거수(六度門中 行檀居首)
수행자 일번지는 베푸는 마음, 보시!
대중을 부처님으로 시봉하자.

목탁소리 이놈이요, 대종소리 이놈이요
시심마(是甚麼)요, 관세음보살이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
그때그때 새롭게, 새롭게!
이 몸은 피고 지고 법계의 속성입니다.
마음이 개운해졌나? 공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
보고 듣는 이놈, 엉뚱한데 헤맬 일이 없습니다.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구름 걷힌 푸른 하늘 이뭘까?가 답입니다.
이 물건 놓치면 진기 빠진다.
이탈하지 마라. 하늘땅이 등 돌린다.
다 제쳐두고, 도방하(都放下)하고 결심한 이 안거
이보다 통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난 셈치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이보다 큰 발심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 한 덩어리 이 물건
바탕이 확실해지면 코 꿰일 일이 없더라.
돈각삼천시아가(頓覺三千是我家)
이놈이요, 유아독존이요, 내 책임이더라.
예불할 수 있을 때, 팔다리 쓸 수 있을 때
밥맛 있을 때,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을 때가
하늘이 이 하늘이고, 땅도 산도 바다도 모두 이 놈입니다.
지심귀명례, 이 자리, 지심이요, 응관(應觀)입니다.
온통 산하대지가 일색 에너지로 둘러꺼지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체껴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니 이놈이요, 꿈틀거리니 이 물건이로다.
놀랍다, 이 물건이여, 이 맛이여!
하늘땅을 안고 있는 대적(大寂)삼매 온통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응관! 부처님의 화두입니다.
나무 가지가지 끝끝마다 만경창파 물결마다
끝 파도요, 응관법계성이요, 절절이 감동입니다.
대자대비 사랑으로 팔을 벌려 다 안아주는 부처님의 화두, 응관
거룩하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예불할 때마다 맹세합니다. 걸음걸음 맹세합니다.
상어반야불퇴전(常於般若不退轉)
퇴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뭘까? 〈하략〉